

## 34. 굴참나무



◦ 학명: Quercus variabilis 참나무과(一科 Fag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남쪽으로 향한 산허리의 해가 잘 비추는 양지쪽의 약간 마른땅에서 잘 자란다. **수피(樹皮)에 코르크가 두껍게 만들어지며 깊게 갈라진다.** 긴 타원형의 잎은 어긋나고 잎맥이 9~16쌍 나란히 나와 있으며 잎가장자리에는 뾰족한 톱니가 나 있다. 잎 뒷면에는 별모양의 털이 백백하게 나 있다. 꽃은 5월에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따로따로 피는데, 수꽃은 아래로 처져 있어 꼬리처럼 보이는 꽃차례에 무리져 달리며 암꽃은 새로 나온 가지 끝에 곧추서서 보통 1송이씩 핀다. **열매는 둥글고 뒤로 젖혀진 많은 긴 포린(비늘 모양의 작은 돌기)으로 싸여 있으며, 꽃이 핀 다음해 10월에 익는다.** 상수리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상수리나무는 잎 뒤에 별 모양의 털 대신에 단모(單毛)만 나와 있으며, **굴참나무는 잎 뒤가 회백색이나 상수리나무는 황록색이어서 쉽게 구분된다.** 수피의 코르크를 벗겨내어 병마개, 압착 코르크판을 만든다. 목재는 표고버섯의 골목, 딸감 등으로 쓰인다. 도토리는 목을 만들어 먹는다.

참나무 껍질을 진하게 달여서 그 물로 종기나 악창(고치기 어려운 부스럼), 연주창(임파선 결핵), 피부염 부위를 씻으면 잘 낫는다.

## 35. 상수리나무



◦ 학명 *Quercus acutissima* 참나무과(一科 Fag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25m까지 곧게 자란다. 수피(樹皮)는 검은 회색이며, 세로로 갈라진다. 잎은 밤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긴 긴 타원형으로 잎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들이 있으며, 앞 뒷면에는 털 이 있다. 꽃은 5월쯤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잎겨드랑이에 미상(尾狀)꽃차례로 무리져 핀다. 수꽃은 5장의 꽃덮이조각[花被片]과 8개의 수술로 되어 있으며, 암꽃은 1장의 포(비늘 모양의 녹색 잎)에 싸여 있고 3개의 암술대로 되어 있다. 열매는 꽃이 핀 다음해 10월에 단단한 열매(堅果)로 익는 데, 꼭정이[殼斗]가 뒤로 젖혀진다. 참나무 종류의 열매를 보통 도토리라고 부르나 **상수리나무 열매는 특별히 상수리라고 부른다.(상수리열매로 만든 목이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 이것을 가을에 따서 가루로 만들어 떡 또는 목을 만들어 먹거나 밥에 섞어 상수리밥 을 지어 먹는다. 열매 삶은 물은 염색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삶고 난 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옅은 황갈색 물이 들고, 잿물을 매염제로 사용하여 염색하면 짙은 황갈색, 철을 매염제로 쓰 면 푸른빛을 띠는 검은색, 철로 처리한 뒤 잿물을 더하면 검은 갈색빛이 나타난다. 상수리를 가을에 따서 껍질을 벗긴 뒤 햇볕에 말린 것을 상실(橡實)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설사치료제(止瀉劑)·위장치료제로 사용. 목재로 차륜·차축·기구를 만들거나 땀감으로 사용. 가을에 단풍이 든 후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은 채 나무에 달라붙어 있기도 한다.

# 36졸참나무



학명 *Quercus serrata* Thunb. ex Murray 참나무과(一科 Fagaceae) 참나무속(一屬 *Quercus*)에 속하는 낙엽교목. 수꽃은 3~12개의 수술과 5~8장의 꽃덮이조각[花被片]으로 되어 있으며, 암꽃은 2~7갈래로 나누어진 암술대와 6장의 꽃덮이조각으로 되어 있다. 열매는 가을에 비늘 모양의 작은 돌기(苞鱗)로 덮힌 길이가 2~12mm인 껍질이[殼斗]도토리로 익는데, 한국에서 자라는 참나무 종류 중에서 가장 작다. 한국의 중부 이남에서 자라고 도토리를 먹거나 약으로 쓰며 목재는 건축재·약기재·목기재로 사용한다

도토리의 효능 :도토리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콘산은 인체 내부의 중금속 여러 유해물질을 흡수,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도토리는 피로회복 및 숙취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소화기능을 촉진시키며 입맛을 돋구워 준다. 도토리는 장과 위를 강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하며 강장 효험을 볼 수 있다. 도토리는 당뇨 및 암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잇몸염,인후두염,화상등에 효과가 있다. 뛰어난 중금속 정화효과(도토리 1g이 중금속폐수 3.5ton을 정화) 완전 무공해식품으로 열량이 적으며(100g당 70kcal) 성인병과 비만에 아주 좋은 식품 장과 위를 보호하며 설사를 멎추고 피를 맑게 하는 기능, 도토리에 항암 작용이 있다.

## 37.노각나무



학명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차나무과(一科 Theaceae)에 속하며 약 8종(種)의 관목과 소교목으로 이루어진 한 속. 동백꽃같이 **화려한 꽃과 껍질이 벗겨지는 줄기 모양이 보기 좋아 온대지역에서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노각나무**(*S. koreana*)가 지리산에서 자라고 있다. 꽃은 하얀색으로 6~7월에 피며 10월에 오각형의 삭과(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는 열매)가 열린다. 일본노각나무와 함께 정원에 심고 꽃과 껍질이 벗겨지는 줄기의 모양을 감상하기도 한다.

**나무껍질과 뿌리 껍질**효능: ①타박상으로 어혈(瘀血)이 진 것을 풀어주고, ② 풍습성(風濕性)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동통이 있을 때에 유효하다.]노각나무의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서늘하고 독이 없다. **근육과 힘줄을 풀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타박상, 풍습(습기로 인하여 아픈 병)으로 인한 마비를 치료한다.** 노각나무의 잔가지 또는 뿌리를 20~40그램을 물로 달여 먹거나 술에 담가 우려내어 먹는다.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노각나무를 고로쇠나무처럼 간장병,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에 수액을 받아 먹기도 한다. 산행을 하다보면 수피가 매끈 매끈하고 껍질 군데 군데 얼룩무늬가 있는 나무를 발견할 수 있다. **여름철 꽃을 감상해 보면 숲속에서 노각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 38. 일본잎갈나무(낙엽송)



학명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

소나무과(科 Pin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30m, 지름은 1m까지 자란다. 가지는 조금 위쪽을 향해 나란히 달리며, **수피(樹皮)는 두꺼운 비늘처럼 갈라져 있다. 초록색의 잎은 10여 장 이상씩 모여 달리는데, 가을에 노랗게 물들며 떨어지기 때문에 낙엽송(落葉松)이라고도 한다.** 잎은 길이가 1.5~3.5cm이며, 뒷면에 기공선(氣孔線)이 있다. 꽃은 5월에 타원형의 암꽃송이와 구형 또는 난형의 수꽃송이가 같은 가지 끝에 1개씩 핀다. 3각형의 씨는 9월에 익는데, 구과(비늘 조각이 여러 겹으로 포개어져 있는 열매)를 이루는 실편의 수는 50~60개이며, 실편의 끝이 조금 뒤로 젖혀진다. 일본이 원산지로 한국에는 1914~27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며 중부 이남에 있는 산의 조림수로 널리 심어져 있다. 나무가 원추형으로 자라고 가지가 옆으로 길게 뻗으며 잎이 가을에 노랗게 물들기 때문에 정원수나 공원수로 심기도 한다. 양지바르고 비옥한 토양에서만 자라며 **수명이 짧고 바람에 꺾이기 쉽다. 맹아력(萌芽力)이 있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다. 변재(邊材)는 흰색, 심재(心材)는 갈색이고 나무결은 곧으나, 뒤틀림이 심하고 잘 터진다. 종이 원료도 어렵다.** 토목재·침목재·갱목·**고기상자**등으로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중부 이북지방, 특히 금강산 이북에는 **잎갈나무**(*L. gmelini* var. *principisruprechtii*)가 자라고 있는데, 일본잎갈나무에 비해 열매를 이루는 실편의 수가 25~40개로 적고 조각의 끝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목재는 결이 곧으며 빨리 자라기 때문에 좋은 조림수종으로 여긴다.

## 39.생강나무



◦ 학명 *Lindera obtusiloba* Blume var. *obtusiloba*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녹나무과의 낙엽관목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산지 계곡이나 숲속 냇가에서 자란다. 3월에 노란 꽃이 피고, 열매는 9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나무껍질은 약재로 쓴다. 꽃은 암수딴그루이며 **이른 봄철에 잎이 나오기 전에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며 핀다.산수유 꽃과 비슷하다.,잎이나 가지를 꺾어 코에 대면 생강냄새가 난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잘 못해서 생긴 산후통.산후풍에는 생강나무 줄기나 잔가지를 아무 때나 채취해 잘게 썰어 그늘에 말린 후 하루분 50-70그램 정도에 물 2리터를 붓고 반으로 졸때까지 달여 하루 서너번 마신다. 3일정도 마시며 효과가 아주 좋다. 몸이 쇠약하여 잠이 오지 않고 어지러우며 소화가 안되고 정신이 불안할 때도 생강나무 달인 물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 생강나무 어린잎을 더워서 작설차를 만든다. 이 차는 죽은 피를 없애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몸속에 독을 풀어 준다. **씨앗으로 기름을 짜 여인네들의 최고급 머리 기름으로 이용하였고, 요즘에는 최고급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 40.비목



- 학명 *Lindera erythrocarpa* Makino
- 녹나무과(一科 Laur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10m 정도이고 수피는 황백색이다.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 모여난 것처럼 보이며 잎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짧은 잎자루는 붉은빛이 돈다. 4~5월에 담황색의 꽃이 잎겨드랑이에 산형(꽃대의 끝에서 많은 꽃이 방사형으로 나와서 끝마디에 꽃이 하나씩 붙는형)꽃차례로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핀다. 수꽃은 6조각의 꽃덮이조각[花被片]과 9개의 수술로 되어 있고, 암꽃은 1개의 암술과 끝이 조금 굽어진 암술대로 되어 있다. 수술의 꽃밥은 잎처럼 생겼고 문이 열리듯이 꽃밥에 구멍이 생기면서 꽃가루가 터져 나온다. 열매는 가을에 붉은색으로 익어 노랗게 물드는 잎과 함께 가을을 장식한다. 재질이 단단해 나무못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약용으로는 가지와 잎을 한방에서 첨당과라고 하여 전신 부종의 이뇨와 해독을 위한 약으로 사용되며 민간에서는 관절염,타박상에 이용한다.

# 41.보리수나무



◦ 학명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과(菩提樹科 *Elaeagn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키는 3m 정도이고, 어린가지는 은백색을 띠며 가시가 달려 있다. 잎은 타원형으로 어긋나고 잎에 은백색의 비늘처럼 생긴 털이 있으며 잎가장자리는 밋밋하다. 5~6월에 흰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꽃이 잎겨드랑이에 1~7송이씩 무리져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이 종(鐘) 모양으로 자라 꽃부리를 이루는데 꽃부리 끝은 4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수술 4개는 꽃부리에 달라붙어 있으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10월에 붉은색의 장과(과육 부분에 수분이 많고,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열매)로 익으며 날것으로 먹는다. **석가와 관련된 보리수는 보오나무이다.** 이 나무는 인도의 가야산(伽倻山)에서 자라는 나무로 사유수(思惟樹) 또는 인도보리수라고도 부른다. 보오나무는 상록교목으로 키가 30m에 이르며 잎 기부가 꼬리처럼 길게 자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기침, 가래: 보리수나무 열매 40그램, 흑설탕 20그램에 물 1되를 붓고 절반이 되게 약한 불로 달여서 물 대신 수시로 마신다.

2. 피를 토하는 데, 월경과다: 보리수나무 뿌리 80그램에 물 한 되를 붓고 물이 절반이 되게 달여서 하루 3~7번에 나누어 물 대신 마신다.

3. 알코올 중독, 술독을 푸는 데: 보리수나무 잔가지나 뿌리 40~80그램에 물 한 되를 붓고 물이 절반이 되게 달여서 나누어 물 대신 마신다.

## 42. 산수국



◦ 학명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iebold & Zucc.) Wilson

▪ 꽃말 : 변하기 쉬운 마음

쌍떡잎식물 장미목 범의귀과의 낙엽관목으로 한국, 일본, 타이완의 산골짜기나 자갈밭 등에서 자란다. 흰색 혹은 하늘색, 붉은색 꽃이 7~8월에 피고 달걀모양의 열매는 9월에 익는다. 생각 같아서는 수십 가지의 품종을 만들어 낼 법한데 이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색의 변화를 고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흰색으로 피기 시작했던 꽃들은 점차 시원한 청색이 되고 다시 붉은 기운을 담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자색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알칼리 성분이 강하면 분홍빛이 진해지고, 산성이 강해

지면 남색이 더욱 더 강해진다. 이러한 꽃의 특성 때문에 인위적으로 토양에 첨가제를 넣어 꽃색을 원하는 대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이 꽃의 꽃말도 변하기 쉬운 마음이다. 한방에서는 수국류를, 그 중에서도 수국의 기본종이 되는 종류를 수구(수球), 수구화(繡毬花) 또는 팔선화(八仙花)라고도 부르며 뿌리와 잎과 꽃 모두를 약재로 쓴다. 심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을 가졌으며 학질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에 처방하고 열을 내리는 데도 많이 쓰인다.

# 43. 당단풍나무



- 학명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 꽃말 자제, 은둔, 약속단풍나무과(丹楓-科 Acer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곳에서 자라고 있으며 가을에 붉게 물든다. 가지는 적갈색을 띤다. **당단풍나무 잎은 9~11갈래로 갈라지고, 단풍나무는 5-7갈래로 갈라진다.** 단풍나무와 다르다. 당단풍나무와 비슷한 식물로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섬단풍나무(*A. takesimense*)가 있는데, 잎이 13갈래로 갈라지는 점이 다르다. 단풍나무 집안 나무들은 잎보다는 열매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두장의 날개가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마주 달고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름이 가면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드는 잎의 엽록소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파괴되어 가면서 생활력이 쇠약해지고 붉은 색소인 화청소가 새로 생겨나 잎이 붉게 물들게 된다. 당단풍나무를 포함한 이 집안 식물들은 가을 빛이 좋아 정원에 심는 나무로 인기가 높지만 목재로도 한 몫을 한다. 집안을 통칭하는 이름인 속명 에이서(*Acer*)는 라틴어로 강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나무의 재질이 강하다. 가마, 배의 키와 같은 큰 기구는 물론 소반이나 이남박(함지박의 일종) 같은 집기에도 이용되었다.**

**가공이 다소 어렵지만 붉은 빛이 돌아 아름답고 재질 또한 치밀하여 잘 갈라지지 않는다. 체육관이나 볼링장 같은 곳의 나무바닥이나 각종 건축재, 가구재로 쓰이고 특히 바이올린의 뒷판이나 비올라의 액션 부분 소리를 잘 울려야 하는 곳에는 꼭 단풍나무 종류가 쓰인다.** 때로는 어린 잎을 삶아서 우려낸 뒤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구황식물의 역할도 한 셈이다. 또한 별미로 은어와 함께 녹말을 씹워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한다. 이른 봄 수액을 채취하여 약으로 이용한다. 이제 산마다 서 있는 당단풍나무 보고 그저 아름답다고 감탄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다가가 잎이 갈라진 수를 헤아려 본 뒤 단풍나무인지 당단풍나무인지 정확히 구별해 불러주는 일에서부터 자연 사랑을 시작해보자.

# 44. 물푸레나무



◦ 학명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과(一科 Ole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란 뜻으로 물푸레나무**라고한다.

키는 10m까지 자라지만, 가지가 많이 나오며 이들이 모여 자라기 때문에 관목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린가지는 회색빛이 도는 갈색이다. 잎은 마주나고 날개깃처럼 갈라져 5~7장의 잔잎으로 이루어졌으며 잔잎은 긴 난형(卵形)이다. 잎의 앞쪽은 초록색이며 털이 없으나 뒤쪽은 회색빛이 도는 초록색이고 주맥(主脈)에 털이 있다. 꽃은 5월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총상(중심축에 꽃대가 있고, 무리져 피는 하나하나의 꽃이 짧은 꽃자루에 달리는 형)꽃차례를 이루어 피는데, 때때로 암술과 수술이 모두 한 꽃에 피는 양성화(兩性花)로 피기도 한다. 꽃차례는 올해 만들어진 가지의 앞겨드랑이에서 나온다.

예전에 **도리깨를 이 나무로 만들었고 지금도 야구방망이와 스키를 만든다.** 옛날에는 이 나무로 **벼루를 만들기도 했는데, 가볍고 잘 깨어지지 않아서 선비들이 나들이 때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상처에서 피가 나면 물푸레나무 삶은 물로 소독과 지혈을 겸했다. 물푸레나무 달인 물로 먹을 갈아 글씨를 쓰면 천 년을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고 한다. 물푸레나무를 태운 재는 염료로도 귀하게 썼다. 옛날 산속의 수도승들은 물푸레나무 태운 재를 물에 풀어 옷을 염색했다. 물푸레나무 잿물로 들인 옷은 파르스름한 잿빛인 데다 잘 바래지 않아서 승려복으로서는 최상품이었다

▶ **물푸레나무는 눈병에 신약**이다. 껍질을 달인 물로 눈을 자주 씻는다

▶ 백내장이나 녹내장 치료

▶ **통풍 치료**에도 신통한 효력이 있다. 가지를 잘게 썰어서 오래 끓여서 그 물로 찜질을 한다. 이 물을 마시면서 찜질을 함께 하면 효력이 더욱 빠르다.

# 45.산뽕나무



◦ 학명 : Morus bombycis 뽕나무과(一科 Moraceae)에 속하는 낙엽  
뽕나무와 비슷하지만 뽕나무보다 암술대가 길고 잎끝이 꼬리처럼 길며 잎가장자리의 톱니 끝이 뾰족하다. 뽕나무처럼 어린줄기·잎열매·뿌리를 약재로 이용한다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는 옛부터 몸에 좋은 열매로 알려져 있다.

오디에는 노화억제 항산화 색소인 'C3G(cyanidin-3-glucoside)'는 물론 **고혈압 억제 물질인 '루틴(RUTIN)'과 혈당 저하 물질인 'DNJ' 등건강 기능 성분이 다량 함유됐다.**

혈당 저하 성분이 있어 당뇨병자에 적합하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식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오디에 함유된 항산화 색소 C3G는 노화 억제 효과가 있는 토코페롤보다 7배나 강한 노화 억제 효과**를 보이며 오디의 C3G 최고 함량은 1.27%로 포도의 23배, 유색미의 2.3배에 달한다.

뽕나무잎은 잠엽이라 하여 누에를 기르는 데 쓴다. 한국에는 신라시대부터 뽕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려 현종 때는 마을마다 일정한 수의 뽕나무를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디라는 열매는 날것으로 먹거나 술을 담가 먹는다. **뽕나무를 한자로는 상(桑)이라고 하며 어린가지를 상지(桑枝), 잎을 상엽(桑葉), 열매를 상감자(桑椹子), 뿌리껍질을 상백피(桑白皮)라 하여 모두 약재로 쓰고 있다. 한방에서 상지는 신경통 치료에, 상엽은 해열제로, 상감자는 강장제, 발모촉진제 및 빈혈 예방에 사용하고, 상백피는 이뇨제와 고혈압 치료**

## ○ 46.서어나무



○ 학명 *Carpinus laxiflora* 자작나무과(一科 Betul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15m 정도이며 수피(樹皮)는 회색이다. 잎은 어긋나는데 어릴 때에는 붉은색을 띠지만 자라면서 녹색으로 바뀐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한 나무에 핀다. 암꽃은 1장의 포(苞)와 2개의 암술로 이루어지고 암술머리는 2갈래로 갈라지며, 가지 끝에 곧추서 있는 미상(尾狀)꽃차례(거의 자루가 없는 꽃이 꼬리 모양으로 모여 달려 늘어지는 이삭 모양의 형태)로 무리지어 핀다. 수꽃은 1장의 포와 8개의 수술로 이루어져 암꽃차례가 달린 아래쪽에 아래로 처져 핀다. 암꽃차례가 아래로 숙여지면서 열매로 되어 잎들이 촘촘히 모여난 것처럼 보인다. **목재는 회색을 띤 황백색으로 질이 치밀하고 굳으며 탄력성이 좋지만 잘 쪼개지지 않는다. 기구나 농기구의 자루 및 땀감으로 쓰이며, 표고버섯을 키우는 골목감으로도 쓰인다.**

참고 '개서어나무' 잎추출 미백화장품 개발 특허 취득

**미백 및 보습효과가 뛰어난 천연원료인 개서어나무를 이용한 미백화장품 개발에 성공했다.**

**. 개서어나무 잎 추출물은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와 TRP-2 등의 효소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미백 개선 및 각질량 감소 기능이 뛰어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나오는 자생 자원을 활용해 **미백 화장품 원료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개서어나무 잎 추출물은 **주름 개선이나 세포보호, 염증 등에 대한 효과도 있다.**

# 47.느릅나무



◦ 학명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느릅나무과(一科 Ulm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교목.

◦ 꽃말 위엄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로 꽃은 4월에 연한 노란색으로 핀다. 열매는 4~5월에 녹색에서 갈색으로 익으며, 날개가 달려 가운데가 부푼 동전 모양을 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나무에 동전들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봄에 어린잎을 따서 떡에 넣어 먹기도 한다. 변재(邊材)는 백색이나 심재(心材)는 암홍색으로 질이 굳고 무거우며 탄력성이 좋고 틈이 벌어지지 않아 건축재·기구재·선박재·떨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꿈에 느릅나무잎을 보면 큰 은혜(도움)를 받게 된다고 한다.

느릅나무의 효능

◆ 부스럼과 종기 치료 ◆ 위하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효과

◆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통하게 하는 기능 ◆ 축농증과 중이염 치료

◆ 종기, 종창과 곪은 상처에 효과 ◆ 여성의 피부를 곱게하는 작용

한방이나 민간에서 느릅나무 뿌리껍질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갖가지 궤양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 많이 써왔으며 위암이나 직장암 치료에도 쓰이는데 특히 위암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느릅나무 잎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수면제

# 48. 고로쇠나무



◦ 학명 *Acer mono* 단풍나무과(一科 *Aceraceae*) 단풍나무속(一屬 *Acer*)의 낙엽교목.  
키가 20m까지 자란다. 5~7갈래로 잎이 나누어진 고로쇠나무는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연한 초록색으로 5월에 가지 끝에 달리는 산방(繖房)꽃차례(꽃줄기의 아래쪽에 달리는 꽃들은 긴 꽃자루를 지니고 위쪽에 달리는 꽃들은 이보다 짧다)로 무리져 핀다. 열매는 날개가 달려 있는 시과(翅果)(열매의 껍질이 얇은 막 모양으로 돌출하여 날개를 이루며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 흩어지는 열매)로,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간다. **잎은 가을에 노란색으로 물든다.**

이른봄에 나무줄기에 상처를 내면 상처틈을 타고 약수(藥水) 또는 풍당(楓糖)이라고 하는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한방에서는 이 수액을 약수라 해서 체질개선에 쓰거나 신경통·위장병 환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있으며,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골리수(骨理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재는 가구, 악기, 조그만 식품의 재료로 쓰인다.

신비로운 생명수 고로쇠 수액 효능

1. **숙취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2. **내장기관의 노폐물 제거와 신진대사의 촉진 성분.**
3. **비뇨, 변비, 류머티스관절염, 위장병, 신경통, 피부미용에 효험**이 크다.
4. **신장병, 이뇨작용에 특효**가 있다.

## 49.고광나무



- 학명 *Philadelphus schrenkii* Rupr. var. *schrenkii*
- 꽃말 추억, 기쁨, 품격 수국과(水菊科 Hydrangeaceae)에 속하며 약 75종(種)의 관목들로 이루어진 속. 가지가 많이 갈라지는 줄기는 높이 1~2m 정도이며, 수피가 종이처럼 얇게 벗겨진다. 잎은 마주나는데, 꽃이 피는 가지에 달리는 잎이 꽃이 피지 않는 가지에 달리는 잎보다 훨씬 작으며 잎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거나 아주 작은 톱니가 있다. 꽃은 흔히 2송이씩 짝을 이루며 원추(圓錐)꽃차례와 비슷하게 무리져 핀다. 꽃잎은 4장이며 암술머리는 4갈래로 갈라졌다.

우리나라에는 잎과 줄기에 털이 많이 달리고 봄에는 향기로운 하얀색 꽃을 피우는 [서울고광나무](#)(*P. seoulensis*)가 흔하며, 고광나무(*P. schrenkii*)는 북쪽 지방에서만 자라고 있다.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고광나무(*P. grandiflorus*)는 뜰에 많이 심는다.

청열해독(열독으로 유발되는 병)과 소증(종기를 삭히며 해독)의 효능이 있다.

염증이 심한 치질에 달여서 복용하고

허리와 등이 걸리면서 아픈 증상에 활용한다.

꽃은 신경계통 강장제 또는 이뇨제로 쓴다.

## ○ 50. 쪽동백나무



- 학명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때죽나무과(一科 Styrac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는 15m까지 자란다. 수피(樹皮)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으로 매끈하며 광택이 있다. 꽃은 5~6월에 가지 끝에 총상(總狀)꽃차례(중심축에 꽃대가 있고, 무리져 피는 하나하나의 꽃이 짧은 꽃자루에 달리는 형)를 이루며 하얗게 무리져 핀다. 꽃받침은 5~9조각으로 갈라져 있는데, 열매가 맺힌 후에도 붙어 있다. 통꽃이지만 꽃부리[花冠]가 5갈래로 깊게 갈라져 있으며,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열매는 9월에 삭과(蒴果)(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는 열매)로 맺힌다. **줄기의 수피가 매끈하고 희며 향기로운 꽃이 무리져 피기 때문에 정원에 심기도 한다. 내한성(耐寒性)이 강하며 어떤 땅에서도 잘 자란다. 목재로는 국자·팽이 등을 만들며, 열매로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한다.**

### ▶ 효능

쪽동백나무의 열매를 생약명으로 '옥령화'라고 부른다. 구충(내부,외부 기생충)제거, 요충(항문 안에 있는 기생충)제거에 쟁신나물과 같이 짓찧어 복용한다. 줄기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그치게 한다.

때죽나무와 쪽동백나무의 구분 ♣♣

▷ 때죽나무 : 꽃이 잎겨드랑이에 2~5개씩, 가지 전체에 떼로 핀다. 잎은 어린아이 손바닥 크기  
잎은 달걀모양 또는 긴 타원형이며 길이 2~8cm, 나비 2~4cm

▷ 쪽동백나무 : 가지 끝, 새로난 가지의 끝에 20여 송이가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모여서 핀다. 10~20cm의 타원 모양 또는 둥근 달걀 모양이다. 잎은 어른 손바닥 크기

# 51. 때죽나무



- 학명 *Styrax japonica* 때죽나무과(一科 Styrac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 꽃말 겸손

키가 10m까지 자라지만 줄기 밑동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 무리 지어 자람으로써 4~5m 정도 되는 관목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지에는 별 모양의 털이 많이 나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진다. 잎은 어긋나고 앞뒤와 맥에도 별 모양의 털이 많다. 잎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거나 없다. 꽃은 초롱처럼 생겼으며 흰색이고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총상(總狀)꽃차례(중심축에 꽃대가 있고,무리져 피는 하나하나의 꽃이 짧은 꽃자루에 달리는 형)를 이루어 핀다. 꽃부리는 5갈래로 깊게 갈라지며 수술은 10개이고 수술대의 아래쪽에는 흰색 털이 있다. 열매는 9월에 녹색의 삭과(蒴果)(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는 열매)로 익는다. 그늘이나 반그늘진 곳에서 자라며 추위에도 잘 견디나, 한국에서는 중부 이남에서만 흔히 볼 수 있다. 목재는 기구재·가공재 등으로 쓰인다.

**때죽나무는 물고기를 때로 죽인다고 붙여진 이름**

꽃 향기가 좋아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고 열매는 에코사포닌이라는 독성이 있어 물고기를 기절시켜 물 위로 허영게 떠오르게 한다

쓰기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론 독이 되기도 하는 게 비단 때죽나무 뿐은 아니다.

때죽나무 꽃의 효능은 관절염, 신경통, 풍습성관절염

**사람의 착한마음을 닮은 꽃이라 하여 '인선화'라 부르기도 한다.**

## 52. 철쭉



◦ 학명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 진달래과(一科 Eric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키는 2~5m이고 어린 가지에는 선모(腺毛)가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지며 회갈색으로 된다.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서는 계란형의 잎 5개가 모여난 듯 달린다. 연한 홍색의 꽃은 잎과 같이 5월 무렵 3~7개씩 가지 끝에 피고 꽃잎은 5개가 합쳐 깔때기 모양을 이루는데 지름이 5~8cm이다. 열매는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선모가 있는 타원형의 삭과(蒴果)(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는 열매)로 10월에 익는다. 흰 꽃이 피는 것을 흰철쭉이라 하고, 이외에 같은 속에는 갈색 털과 꽃대에 점성이 있고 잎이 피침형인 산철쭉(*R. yedoense* var. *poukhanense*), 이와 비슷하지만 점성이 없고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진달래(*R. mucronulatum*)를 비롯하여 10여 종(種)이 있다.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거나 잎과 꽃을 강장제·이뇨제·건위제 등

# 53.신갈나무



학 명 : Quercus mongolica Fischer

잎	<p><b>잎은 호생하지만 가지끝에 모여 달린것 처럼 보이며 참나무류 중에서 가장 일찍 싹이 나온다.</b> 도란형 또는 도란상 장타원형이고 무디다, 뾰족하며 귀모양(耳底)으로 가장자리에 파도와 같은 상태의 치아상 모양이 있다. 길이 7~20cm, 넓이 6~12cm이며 9~12쌍의 측맥이 있고 1~13mm의 <b>극히 짧은 엽병(잎자루)이 있거나 없다.</b> 뒷면 맥상에 털이 있는 것도 있다.</p>
꽃	<p>꽃은 잡성일가화로 5월에 피며 웅화서는 새가지 기부에서 밑으로 처지고 자화서는 웅화서가 핀 윗부분의 엽액에 곧게 서며 잡종성에는 털이 있다.</p>
열매	<p>견과(과피가 경화되어 단단한 걸껍질처럼 되어 있는 열매)는 타원형이며 길이 6~25mm, 지름이 6~21mm정도이고 각정이는 컵모양으로 비늘같은 포린(비늘 모양의 작은 돌기)으로 덮혔으며 포린은 등이 매우 굽었다. 열매는 9월에 익는다.</p>
수피 및 가지	<p>종자로 된 나무는 줄기가 단립하지만 맹아경신 된 것은 여러 개의 줄기로 된다. 수피는 처음에 평활하지만 자라면서 세로로 갈라진다.</p>

■ 외형적 특성

# 54. 갈참나무



잎	잎은 호생하며 타원상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5~30cm, 넓이 3~19cm정도이며, 1~3cm의 적색 또는 황색을 띠는 엽병(잎자루)이 있다. 둔두, 예저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치아상 또는 에거치가 있다. 양면에 처음에 털이 있으나 표면의 것은 곧 없어지고 뒷면은 회백색으로 2~7개로 갈라진 성모가 있다.
꽃	꽃은 자웅일가화로 5월에 피며 웅화서는 길게 늘어지고 자화서는 곧추선다.
열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의 열매는 2년만에 익는 대신 갈참나무는 꽃이 핀 그해 10월에 익는다. 견과는 타원형으로 길이 6~23mm, 지름 7~16mm이며 끝부분에 털이 있다. 각두는 낮은 접시모양으로 바깥부분에 삼각상의 포린(비늘 모양의 작은 돌기)으로 덮였다.
수피 및 가지	수피는 회색으로 그물처럼 얇게 갈라지며, 동아에는 털이 있다. 어린 가지는 담록색으로 처음에는 털이 있지만 곧 없어진다.
비고	청갈참나무(var. <i>pellucida</i> Bl.) : 잎 뒷면에 털이 없는 것.

# 55. 고추나무



학 명 : Staphylea bumalda Dc.

잎	잎은 마주나고 3출복엽으로 소엽은 난상 타원형으로 잎 끝은 뾰족하고 기부가 뾰족모양이며 양끝이 좁다. 표면에는 털이 없으나 뒷면 맥상에는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침상의 잔거치가 있으며 엽병은 길이 2~3cm이다.
꽃	꽃은 양성화로 새가지 끝에 길이 5~8cm의 원추화서에 달리고 5~6월에 백색으로 피며 소화경은 길이 8~12mm이다. 꽃받침, 꽃잎, 수술은 각 5개씩이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	열매는 삭과로서 편평하고 고무 베개처럼 부풀은 반원형이며 윗부분이 둘로 갈라지고 길이 1.5~2.5cm로서 9~10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종자는 도란형으로 1~2개가 있고, 담황색으로 윤채가 있으며 길이 5mm 정도이다.
수피 및 가지	수피는 자흑색이며, 가지는 둥글고 회녹색으로 털이 없다.
비고	<p>1. 나무의 잎이 고추잎과 비슷하여 고추나무라하며 잎의 광택이 아름답다. 2. 줄기 및 가지가 우아하고, 광택있는 잎이 아름답다. 3. 초여름에 피는 백색꽃은 시골처녀의 소박함을 엿볼 수 있다. 3. 가을에 밑을 향해 주머니처럼 달리는 열매도 관상가치가 높고 특이하다.</p>

히페리신[hypericin]과 타닌[tannin]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고추나무 생잎을 비벼서 붙여주면 좋다. 잎줄기를 건조한 것 10~15g을 컵 1잔의 물에 넣어 반정도 될 때까지 달여서, 식힌 다음 상처나 농가진(피부에 잘 발생하는 물집성 피부감염), 습진 등에 바르면 효과가 좋다.\*약효:소염(염증 치료), 지혈, 진통, 종기, 타박상, 월경불순. 1. 꽃과 열매가 달린 잎줄기를 채취한다. 2. 2~3일간 햇빛에 말려 잘 보관한다. 3. 진하게 달여서 종기, 땀띠, 습진, 피부염 등에 바른다. 4. 벌레 물린 곳이나 찰과상에는 비벼서 붙인다.

# 56. 노린재나무



학 명 :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Ohwi

**잎**  
호생하며 길이 3~7cm로서 도란형 또는 타원형으로 점첨두, 첨두, 또는 둔두이고 기부는 예저이다. 가장자리에 잔거치가 있으나 때로는 뚜렷하지 않다. 잎의 표면은 녹색이며 뒷면은 약간 황색을 띤다.

**꽃**  
새가지 끝에 길이 4~8cm의 원추화서가 달리며 백색 또는 황백색 꽃이 5월에 피며 향기가 있다. 꽃잎은 장타원형으로 수술이 많고 약 보름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열매**  
열매는 타원형이며 길이 8mm로서 9월에 벽색으로 익고 열매 끝에 꽃받침이 남아 있다.

**수피 및 가지**  
하나의 줄기가 곧게 올라와 많은 가지를 내어 우산과 같은 수형을 만든다. 소지에 털이 있다.

**비고**  
흰노린재(var. leucocarpa Ohwi) : 열매가 백색으로 성숙하는 것.

1. 소관목으로 하목으로 식재하면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2. 남색의 열매도 관상가치가 있다. 3. 꽃이 만개할 때면 우산모양의 나무 전체가 백설같은 흰꽃을 쓴 듯한 모양이고 푸른 가을하늘을 닮아 푸르게 익어가는 열매가 일품이다. 꽃은 향기도 좋다. 4. 노린재나무란 이름은 가을에 단풍이 물든 잎을 태우면 노란색의 재를 남긴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꽃은 관상가치가 높고 방향성이 있으며 개화기간이 길어 우수한 조경용수로 이용될 수 있다. ▶ 줄기는 재질이 치밀하고 트거나 갈라지지 않아 지팡이나 인장재 소재로 쓰인다.

# 57. 다릅나무



1. 여름철 가지 끝에 달리는 백색 꽃이 관상가치가 높다. 2. 어느 곳에서나 적응력이 높으며 잎도 풍부하고 구릿빛의 수피가 특징이 있어 가로수로의 이용이 권장된다. 3. 건조한 척박지에도 잘 자라므로 척박지의 녹화용으로 시험식재해 볼만 하다. 4. **생장속도가 빠르고, 내한성, 내음성, 내건성, 내조성 및 각종 공해에 강하다.**

다릅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이다. **외모로 볼 때 잎을 언뜻보면 아카시나무와 흡사하고 열매가 열리는 꼬투리도 아카시열매와 매우 비슷하다.**

다릅나무는 결이 아름답고 무거우며 질겨서 기구재, 기계재, 차량재, 농기구의 자루, 땀감 등으로도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이다. **염료로 수피를 사용하기도 한다. 속담에 다릅나무는 "병마를 쫓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 잎을 씹어보면 아카시나무 잎 냄새가 풍긴다. 잎은 타원형 또는 달걀 모양의 쪽잎이 깃처럼 모인 잎이고 어릴 때에는 흰 털이 있다. 여름철에 7~8월에 가지 끝에서 꼬투리 모양의 흰 꽃이 위쪽으로 향하여 피어있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줄기 또는 뿌리의 겉껍질을 벗겨버리고 속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다. 주요 성분으로 시티진과 루피닌,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다. 시티진은 호흡중추흥분작용을 나타내므로 호흡흥분제로 쓴다. 민간에서는 **다릅나무껍질을 진통제로 관절염에 쓰며 종양 치료제로도 쓴다.** 또한 상처와 사마귀, 가골(假骨)[가골: 뼈가 부러졌거나 결손되었을 때 국소에 새로 생긴 불완전뼈조직을 말한다.]이 생긴데도 쓰는데 가루내어 뿌리거나 고약을 만들어 붙인다." 다릅나무는 아픔땀이약, 종양 치료약, 위암, 항궤양, 부인병에 껍질, 가지와 잎을 사용한다. 다릅나무 껍질가루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한다.

**산짐승들이 병이 나면 다릅나무의 줄기나 껍질을 갈아 먹는다. 또 겨울철이 지나고 이른 봄철에 몸안에 쌓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갈아 먹는다.**

다릅나무의 효능을 정리하면 임파선염, 임파선암, 임파부종,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염, 갑상선암, 폐암, 직장암, 자궁근종, 자궁물혹, 자궁암, 신경쇠약, 혈액암, 생리통, 생리불순, 편두통등을 낮게 하거나 호전 시킨다.

# 58.대팻집나무



학 명 : *Ilex macropoda* Miq.

잎

잎은 호생하지만 짧은 가지에서는 총생하며 넓은 난형 또는 타원형로 예두이고 기부는 원저 또는 예저이며, 길이 3~10cm, 넓이 3~4.5cm이고 거치가 있다. 표면에 처음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뒷면 맥위에 끝까지 털이 남아 있다. 측맥은 6~8쌍으로서 뒷면이 돌출하여 있다.

꽃

꽃은 자웅이화로서 엽액에 모여서 5월에 작은 꽃이 핀다.

열매

열매는 지름 7~8mm의 핵과로서 육질이고 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수피 및 가지

줄기는 곧게 자라며 어린가지는 회갈색으로 약간의 각이 졌다.

비고

민대팻집나무·청대팻집나무(for. *Pseudo-macropoda* Hara) : 앞의 뒷면에 털이 전혀 없는 것. 지리산 및 제주도에 자란다.

1. 수형과 열매가 아름다워서 공원이나 정원에 관상수로 심을 만 하다. 2. 염주같은 열매가 한달 이상 나무에 매달려 매혹적이며 완전히 익으면 새들의 먹이가 된다. 3. 목재는 치밀하고 무거우며 건조후에도 갈라지지 않아 대패집을 만든다하여 나무 이름이 붙혀 졌다.

# 59. 돌배나무



학 명 : Pyrus pyrifolia Nak.

장미과(薔薇科 Ros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키 5m까지 자라며, 어린 가지에는 털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진다. 잎은 난형이며 꽃은 4~5월에 흰색으로 핀다. 꽃잎은 5장이며, 암술대는 4~5개로 나누어지고 털이 없다. 열매는 지름이 3cm 정도이고 가을에 다갈색으로 익는데, 익을 때 꽃받침이 떨어진다. 열매는 돌배라고 하여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먹고 약으로도 쓰이며, 목재는 단단하여 기구·기계의 재료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한다.

## ♣ 약리

**주성분은 칼슘, 인, 단백질, 비타민C 등이 풍부하다.**

약용은 해열, 곽란, 통변, 이뇨, 강장, 풍열, 금창에 효과가 있다. 또한 광상수, 밀원용으로 사용되며, 배나무의 대목으로 이용된다.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생진윤조, 청열화담의 효능이 있어 열병으로 진액이 손상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일으킬때 쓰고, 소갈증에 갈증을 멈추게 하며 발열 및 해수에 해열, 진해 작용을 나타낸다. 대소변을 잘 못보는 증상에도 유효하다. 민간에서는 배의 속을 빼고 꿀을 넣어 고아서 먹는다. **주의사항**으로는 대변이 묽고 잔기침을 할때 복용을 피해야 한다.

배의 성질은 찬평이고 맛은 달지만 약간 신맛이 있다. 그리고 독이 없다.

재배하는 배나무 보다는 **산에서 야생하는 돌배나무가 훨씬 더 큰**

효험이 있다. 약용으로 사용 할 때에는 시중에서 파는 배도 효험이 있지만, 그 보다는 산에서 강인하게 생명력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돌배나무의 열매, 잎, 잔가지, 껍질, 뿌리** 등을 약용으로 사용

# 60. 마가목



학 명 : Sorbus commixta Hedl.

마가목(*Sorbus commixta*)은 한국·일본 등에 분포하는 낙엽 활엽교목으로서 높이는 6-8m 가량이다. 잎은 어긋나며 깃꼴 겹잎으로, 4-7쌍의 작은잎으로 구성되는데, 작은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장자리는 가는 톱니처럼 되어 있다. 초여름이 되면 잎겨드랑이에 작은 흰 꽃들이 겹산방 꽃차례로 무리지어 핀다. 열매는 붉고 둥글며 관상수로 심는다. 이른 봄철 눈이 트려 할 때의 모습이 말의 이빨처럼 힘차게 솟아오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나무껍질과 열매는 중풍 치료에 쓰인다.

0..**마가목열매로 담은 술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중풍,기침,위장병,양기부족 등에 효험**

0. **정신분열증**: 가을에 마가목 열매를 채취하여 물을 붓고 달여서 진하게 농축하여 하루 50그램을 3번에 나누어 4~7개월 동안 먹는다. 대개 4개월이 지나면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6~7개월이면 치유된다. 마가목 열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며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0. **유선염**: 봄철에 마가목 껍질을 벗겨서 물을 적당히 붓고 오래 달여서 약액을 만든 다음 기름종이에 3~4밀리미터 두께로 고르게 발라 2일에 한 번씩 갈아붙인다. 3~4번이면 염증이 없어지고 통증이 사라진다. 마가목은 염증을 삭이고 갖가지 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

0.**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류마티스관절염,위염등에 효능**

# 61. 초피나무(제피나무)



운향과(芸香科 Rut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고 키가 3m에 달한다. 가지에는 턱잎[托葉]이 변한 **가시가 마주나며**, 연두색 빛이 도는 노란색의 작은 꽃은 5월경에 잎겨드랑이에서 짧은 꽃줄기가 나와 그 끝에 모여 겹총상꽃차례를 이루고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그루에 핀다. 꽃잎은 5장이고 수꽃에는 5개의 수술이 있으며 씨방에는 자루가 있다. 붉은색의 열매는 선점이 있으며 9~10월에 익고 흑색의 씨가 들어 있다. 어린잎을 먹기도 하고 열매는 해독제·소염제·이뇨제·통경제 및 복통·설사·감기·황저·중풍·사독 치료 또는 향미료로서 사용하고 수피(樹皮)는 전피라고 하여 고기잡이에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어탕에 넣어 먹거나 김치를 시지 않게 하기 위해 넣고, 껍질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에 써 왔을 뿐인 초피가 요즈음 후추와 겨자를 능가하는 세계 제일의 천연 향신료이자 에이즈 균까지 죽일 수 있는 훌륭한 약재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1천만 평이 넘는 땅에 초피나무를 재배하여 초피 가루를 미국·유럽으로 수출하여 국가적으로 큰 소득을 얻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초피 열매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한국으로 역수출하고 있기까지 하다.

대개 열매껍질을 향신료와 약으로 쓰고, 씨앗이나 어린 잎, 나무 줄기도 여러 용도로 쓴다. 초피 열매는 한방에서 해독·구충·진통·건위약으로 많이 쓴다. **초피나무 열매 껍질을 베개 속에 넣고 자면 두통이나 불면증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 또 여름철에 잎이 붙은 연한 가지를 잘라 그늘에서 말렸다가 가루 내어 계란 흰자위와 밀가루를 섞어서 이겨 화장 크림처럼 만들어 동상·타박상·요통·근육통·종기 등에 바르면 효과가 신통하다. 초피나무는 균을 죽이는 힘이 대단히 강하여 에이즈 균과 같은 난치병치료에 이용될 것이다.**

## 62.산초나무



키는 3m 정도이고 **줄기와 가지에는 가시가 서로 어긋난다.** 잎은 13~21장의 잔잎으로 이루어진 겹잎으로 향기가 나며 잎가장자리에는 톱니가 10개쯤 있다. 꽃은 연한 녹색으로 여름에 가지 끝에서 산방(繖房)꽃차례로 무리져 피는데,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핀다. 꽃잎은 5장이며, 암술머리는 3갈래로 나누어진다. 열매는 초록빛이 도는 갈색이나 익으면 벌어져 검은색 씨들이 밖으로 나온다. 초피나무 열매를 산초라고 하며, 산초나무 열매는 분디 또는 분지라고 한다. 산초나무와 비슷한 초피나무는 가지에 달리는 가시가 마주나고, 잎가장자리의 톱니 수가 3~5개 정도로 적고 꽃잎이 없으며, 또한 열매가 붉은빛이 도는 갈색으로 익는 점에서 산초나무와 다르다.

**산초나무 종자에는 정유함량이 높아 예로부터 종자에서 기름을 짜서 위장병이나 기관지 천식에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외부 종기의 치료**에 쓰였다.

산초종자의 정유에서는 레몬린(Limonene) 58%, 시트로네날(Citronell) 22%, 베타-펠렌드레네( $\beta$ -phellandrene) 6.4%, 시네올(Cineol) 2.2%, 테르피노레네(Terpinolene) 1.4%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산초나무 종자에서 추출한 정유물질이 국부마취 및 진통작용이 있고, 항균작용에서는 대장균, 적리균, 구균류, 디프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피부사상균 등에 억제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산초기름 1리터에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생산량 부족으로 수요에 못미치는 실정이라 폐농경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재배하면 농가소득 증대**

# 63. 함박꽃나무



학 명 : Magnolia sieboldii K. Koch

목련과(木蓮科 Magnoliaceae)에 속하는 낙엽 소교목. 해발 50~1,400m의 지역에서 자라며 한국 전역에 분포

**함박꽃나무. 흔히 산목련이라고도 한다.** 산에서 피는 목련이란 뜻이다. 목련과에 속하고, 잎의 모양도 목련과 비슷하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목련꽃은 하늘을 향해 피고, 함박꽃은 땅을 보고 핀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련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피지만, **함박꽃은 꽃과 잎이 같이 핀다.** 함박꽃나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북한의 국화라는 것이다. 향기도 아주 좋다. 열매는 새들이 좋아 한다.(북한의 처음 국화는 진달래이다)**

약재로도 사용되는데 뿌리는 진통, 이뇨, 하혈에 효과가 있고, 꽃은 안약이나 두통에 처방한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씨를 싸고 있는 붉은 색 껍질을 고급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한다. 종자의 껍질을 벗겨 말려서 가루로 빻으면, 초피가루처럼 맵고 향기로운 독특한 향신료가 된다. 꽃도 좋고, 잎도 시원하고, 새들도 부르는 우리 나무. 산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 주는 숲 속의 주인공이다

**비염과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꽃봉오리를 코에 끼우고 잠을**

**자도 그 효험**을 느낄 수 있다. 피기 직전의 꽃봉오리를 따 한잎씩 떼내어 그늘에 말린 후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에 보관해 두었다가 끓는 물에

꽃잎을 몇 개 넣어 차로 마시면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차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향기와 맛에 반해버릴 것이다. 함박꽃나무는 우리나라 깊은 산속 중턱쯤 계곡에서 잎이 다 자라고 난 다음, 5~6월에 꽃이 핀다. 열매는 9~10월께 붉은색으로 열리며 수술대와 꽃밥도 붉은색이다.

**함박꽃나무라는 이름은 꽃이 함박(통나무로 파서 만든 나무 그릇인 함지박)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